

STORY 03

강대, 우리 반 이야기 (인문)

김나래
[서울대 경영대학]

김미주
[서울대 인문계열]

안병선
[서울대 경영대학]

이수희
[연세대 경영]

<강남대성학원 선택 이유>

고은 원장

귀한 시간들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일단 한 명씩 소개를 하면 우리 수희 학생, 나래 학생, 그리고 미주 학생, 그리고 병선이군. 왜 재수를 결심했는지 재수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굳이 재수종합반. 그리고 강남대성 정규반을 왜 택하게 됐는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수희

저는 재작년에 수능을 많이 망쳤었고요 어쩔 수 없이 선택지가 재수라는 것밖에 안 남은 것 같아서 좀 괴로운 심정으로 재수를 선택하게 됐는데, 시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걸 고3 1년 동안 크게 느껴서 시스템에 저를 좀 맡기고 싶은, 의지하고 싶은 곳이 필요해서 재중 학원을 선택하게 됐고, 강남대성은 가장 많은 추천이 있었고, 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입시를 다뤘던 기관이라 시스템도 체계적일 것 같고 상위권 학생들의 데이터도 많을 것 같아서 강남대성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미주

저는 현역 때는 수시와 정시를 병행했던 입장이었는데 수시를 일단 떨어지게 되었고 정시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결과적인 아쉬움이 조금 있어서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더 제대로 된 학원에서 하자는 생각이 커서 강남대성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나래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아무래도 수시를 준비했던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수시로 대학을 당연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과가 나와보니까 수시로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내 미래를 위해서라도 1년 있다가 대학을 가더라도 재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재수를 택하게 되었고 그동안 공부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공부 방법으로 수능에 접근해야 하는데 그것을 많이 알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가장 체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학원이 강대이지 않을까 싶어서 강남대성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병선

제가 현역 때 수능 첫 시간에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서부터 평소에 보던 느낌 그대로 수능장에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름방학 때 잠깐 독학 재수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그 기억을 떠올려 봤을 때 독학 재수 학원 보다는 학교처럼 앞에서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저 혼자 또 배운 내용 복습하면서 계획을 또 세워주시니까 그 계획대로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재종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강남대성학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 강남대성학원의 장점 >

고은 원장

이런 점이 강남대성을 택하길 정말 잘했다 하는 것이 있었다면?

병선

나신 학원도 다녀보고 학교도 다녀보고 했을 때 경험했던 선생님들과는 조금 뭔가 차원이 다른 선생님들이신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강남대성 선생님들은 경력도 있으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도 많이 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선생님들을 믿고 선생님들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좋았고) 강남대성 선생님들이 있기에 강남대성학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래

저는 이 점이 좋아서 강남대성을 선택했다는 것은 아닌데 끝나고 돌이켜 보니까 오히려 수능 후에 사후적인 관리를 해주는 면들이 진짜 강남대성이 좋다고 느끼게 된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제 주위에도 수능을 잘 본 친구들이 여럿 있었는데 막상 수능을 잘 봐놓고도 원서를 잘 못 써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담임 선생님께서 상담을 잘해주시고 불을까라고 의문이 들었던 곳도 불게 되는 경우들을 보니까 이래서 강대는 강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희

제가 대치동 학생이어서 정말 많은 학원도 다녀보고 대형 강의들도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강대 수업이 훨씬 더 도움이 됐고요. 선생님들이 저희를 진짜로 시험을 잘 보게 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게 다 느껴져서 더 열심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주

선생님들이 나눠주시는 자료들이 너무 공부하기에 또 혼자 자습할 때 활용하기에 적합해서 그 부분이 가장 좋았고요. 시험이 너무 많긴 했는데 그래도 그 시험을 치면서 2주에 한 번 시험을 계속 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체크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 가장 인상 깊었던 선생님과 수업 >

고은 원장

그럼 우리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이 선생님이 되게 좋으셨다면가

병선

김우영 선생님이 맨 처음에 비문학 수업을 하실 때 내가 지금까지 잘못 공부했구나 이렇게 공부해야 맞는 거구나 느꼈던 수업이거든요. 그게 가장 인상 깊은 수업인 것 같고, 좋아하는 선생님은 학생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고은 선생님을 제일 좋아하고요.

고은 원장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병선 학생과 저는 지금 짜고 치는 겁니다. 물론 절대 거짓말을 하는 친구는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믿으셔도 될 거예요.

나래

저는 인상 깊은 수업이 선생님 수업이었는데 그때 비문학을 가르치시는 수업에서는 핸드폰에 피아노를 다운받으셔서 음악에 관련된 지문이었는데요. 화성들을 다 일일이 치시는 데 약간 웃기기도 하면서도 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는구나 싶으면서도 진짜 그 음악을 들었던 충격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 또 문학 수업하실 때 사극 연기 해주셨잖아요. 그때 10월쯤이어서 되게 암울한 시기였는데 선생님의 사극 연기를 보면서 진짜 완전 재밌게 수업을 해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고은 원장

참고로 저는 피아노를 잘 못 칩니다. 그래서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미주

저는 여기 오시지는 않았지만, 저희 담임선생님인 박상용 선생님이 제일 인상 깊었던 수업이자 제일 인상 깊은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첫 수업부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재밌게 수업하신다는 것부터가 충격이었고, 수업 내용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풀어주시는데 그게 갑자기 시험에 비슷하게 나올 때도 있고 해서 수업이 되게 좋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수희

저는 수학에 대해서 되게 걱정해서 수학 선생님들 수업을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그 중에 안성현 선생님 수업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선생님이 되게 저희의 눈높이에 맞춰서 문제 풀이를 진행해주시고, 스텝들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많이 반복해서 스텝이 자연스럽게 생각나도록 그만큼 1년 내내 반복해주는 수업을 해서 수능 때도 되게 잘 써먹었던 방법들이고 선생님께 너무 감사했던 일년이었어요

고은 원장

안성현 선생님은 인기가 워낙 많으셨죠?

수희

너무 귀여우세요.

미주

말을 항상 두 번씩 반복하세요. 그런데 그게 진짜 귀여우세요. 애들아 안녕? 이러는 게 아니라 안녕? 안녕?

고은 원장

애들아? 애들아?

미주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라 뭘일? 뭘일? 보고 있으면 진짜 귀여우시고

< 재수 생활의 어려움 >

고은 원장

재수 생활하면서 난 이게 어려웠고 적응하는 데 얼마 걸렸다, 어떻게 적응했다

병선

저는 사람 과목을 생활과윤리에서 법과정치로 선택과목을 바꿨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성적이 당연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부가 하기 싫더라고요. 담임 선생님과 1:1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바꿨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고 열심히 하면 점수 오르고, 수능 때 다 맞을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갖고 하면 된다고 얘기해주셔서 그때부터 선생님을 되게 따르고 열심히 하려고 힘을 냈던 것 같아요.

미주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다 보니까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반부에 슬럼프가 왔었는데 4월쯤에 주말 자습에 왔다가 혼자 평평 운 적이 있었어요. 티를 안 내야 하는데 그날 바로 저녁 자습까지 하고 막차를 타고 본가에 잠시 하루 내려갔다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지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의지를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문제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수희

제일 힘들었던 건 작년 수능에서 받았던 충격이 1년 내내 조그마하게 마음 속에 ‘아 이래도 나는 결국엔 안 되겠지?’ 라는 마음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정말 개개인에 맞춰서 상담을 해주셔서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너 점수면 너 진짜 실력이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선생님이랑 제 실력만 믿기로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나래

저는 힘들었던 시기가 수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할 때 크게 한 번 슬럼프가 왔었는데요. 내가 목표하는 대학은 진짜 높은데 내 수능 성적이 목표 대학에 미치지 않으면, 그래도 수시로 대학을 무조건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수시를 낮춰 써야 하는데 그러면 수시를 낮춰 썼다가 또 정시가 잘 나오면, 수시가 붙어버리게 되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으니까 약간 이러면서 계속 복합적으로 수시를 어디 쓰지 정시를 어떻게 내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나 혼자 이 고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공부 자체가 뒤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크게 한 번 슬럼프가 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고은 원장

결국 대학은 수시로 갔어요? 정시로 갔어요?

미주

정시로 갔죠

고은 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정시, 수능 대비는 많이 한 편은 아니었어요?

나래

고3때 정시 안 했어요

고은 원장

고민을 똑같이 할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나래

정시에 되게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었으면 작년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진짜 이걸 사실인데 물론 운이 엄청 나빠서 떨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어서 떨어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할 때는 정시에 되게 집중을 하고 수시는 정말 내가 수능을 진짜 못 봤을 때 내가 이 대학이라도 가야겠다는 선을 생각해놓고 수시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반 이야기 >

고은 원장

우리 반 분위기는 어땠는지 더불어 우리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중간에 이미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나래

담임 선생님께서 되게 6T 지향주의자셔서 많은 친구들이 자습을 오랫동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말에 가면 아이들이 평일처럼 나와 있고

미주

그리고 또 자율 자습이다 보니까 솔직히 마음먹고 안 오면 안 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수희

분위기 자체가 다 같이 공부하자는 것이다 보니까 내가 대단한 일을 한다는 생각이 안들어서 힘들지도 않고 그냥 주말에 나오는 것

고은 원장

그냥 같이 가는 거니까 그것 자체로 힘들어질 필요도 없고 버스가 같이 가는 거니까

병선

저는 솔직히 아침에 잠이 많아 지고 아침에 안 나온 적이 꽤 많았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다 와있다는 생각을 하면 제가 안 나가면 잘못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반이 다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반 나의 롤 모델>

고은 원장

혹시 나에게 좀 롤모델이 됐다던가 나에게 긍정적 자극을 줬다던가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네?

수희

애네 둘이 맨날 맨 앞에 앉아서 수업 시간에 너무 열정적으로 들고 자다 일어나도 재네는 또 공부하고 있고 조금 늦게 와도 재네는 또 공부하고 있고 집에 가려고 짐 다 싸도 공부하고 있고 마음이 계속 안심할 수 없게 되는 친구들이었어요

고은 원장

밉진 않았어요?

수희

전 좋았어요

나래

미주를 보고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부 시간 부족해지던 와중에 미주가 아침에 일찍 와서 공부를 하고 끝까지 남아서도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아침 시간이랑 10시 끝나고 조금 남아서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 저도 아침 일찍 나와서 공부하고 저녁에도 공부하면서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고은 원장

김미주 학생도 자극을 받았어요?

미주

저는 나래랑 같이 공부를 해서, 같이 해주는 친구가 있다 보니까 안 지치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병선

저도 아침에 조금 일찍 깨서 오면 미주가 항상 있었거든요. 바구니 올려두고 보면 공부하고 있고

수희

우리 반의 상징이었어요

병선

그냥 학원 지킴이 같은 느낌?

<만약 혼자 재수를 했다면?>

고은 원장

만약에 내가 혼자 재수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래

2020년 강대

고은 원장

드디어 깨닫고

미주

한 2~3달은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방학 때 독재 학원을 두 번 다녀봤었는데 하루 종일 누구랑 말도 못 하고 공부만 해야 되다 보니까 우울하다 해야 하나 그런 기분이 들어서 과정상의 어려움은 더 컸을 것 같아요

<재수 생활 동안 즐거웠던 순간>

고은 원장

지금 생각하면 재수할 때 이때가 좋았던 것 같다 즐거웠던 것 같다 그런 순간 있었어요?

나래

6시 30분에 저녁 먹고 나갈 수 있잖아요. 할인마트 가서 가위바위보 진 사람 아이스크림 사주고 아이스크림 먹고 들어오면 아이스크림 먹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안병선

저는 같이 재수는 안 했지만 기숙 학원에 가 있는 친구가 4~5주마다 휴가로 서울에 오면 선생님 몰래 6T 안 하고 몰래 나가서 술 한잔하고 그랬거든요.

고은 원장

주말에?

병선

주말에 주말 자습 시간에

하루 종일 한 건 아니고 5T 채우고 마지막 한 T만 빼고 갔던 거죠

한 달 동안 그 친구 언제 오나 하면서 되게 열심히 공부 하고 리프레시가 됐던 것 같아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은 원장

담임 선생님이 아세요?

병선

그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

미주

한 번 학원에서 6야 유시험 전형을 친다고 오전 자습을 안 했던 적이 하루 있었어요. 그래서 나래랑 같이 놀러 갈 계획을 짜고 한강에서 라면이랑 떡볶이를 먹고 왔었는데 그때의 추억이 안 잊히고

나래

합법적으로 OT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더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성공적인 재수 생활을 위한 조언>

고은 원장

마지막으로 공부하게 될, 공부하고 있는 후배님들에게 선배님으로서 조언 한마디씩 해준다면?

병선

공부하면서 자신감은 꼭 필요하고 자만심은 꼭 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3때 그래서 망한 것 같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자신감은 무조건 가지시고요 나는 잘될 거다 나는 무조건 된다는 생각은 가지시고 그러면서도 공부는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은 원장

판별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자신감이고 이건 자만감이고

병선

저는 솔직히 성적표랑 빌보드 보고 많이 객관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도 다른 친구들이 더 잘하면 그건 제가 정말 잘하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주

수능이 긴 레이스다 보니까 한두 번은 무조건 지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쉬어가면서 하는 것도 저도 중간에 알게 되어서 몇 번 쉬기도 했었고 그런 것도 병행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마음 컨트롤이나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저는 종종 다이어리를 썼었는데 되게 마음을 잡는 데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를 다독여주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래

저는 최선의 상황을 기대를 하되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 싶어요 최악의 상황일 때에도 내가 수능을 잘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선의 상황을 기대하고 마음속에 품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은 원장

최선의 상황을 기대하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는 건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래

그냥 방금 생각했는데요

고은 원장

나래 학생 명언집에 실리는 말 같은데? 나래학생 훌륭한 친구다 국어 선생님이 누구셨더라?

수희

저랑 같이 너무 걱정이 많은 친구들은 그냥 별생각 안하고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생각하지 않고 수능 당일 날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생각하지 않고 하루 해야 할 일을 정해두고 그 일을 다 마무리 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 그런 하루들을 쌓아 나가는 것이 결국엔 수능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은 원장

네 우리 영상 보는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볼 분들을 위해서 한 번 격려의 박수 치면서 마무리 지을까요?